

전 남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 축소 검토

전시장 추진사업 폐지엔 정치적 시비 우려

생산성 떨어지지만 대폭 손질해 존속키로

나주시가 그동안 비생산성 행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었던 '영산강 문화 축제'의 개최 여부를 놓고 정치적 갈등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 고심하고 있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22일부터 3일간 열릴 예정인 '제6회 영산강 문화축제'를 대신 5기에 들어서 실용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전임시장이 추진

했던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무작정 중단시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전면 폐지보다는 축소에 개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시기가 촉박해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나주시는 '영산강문화축제'의 경우 영산강이라는 테마를 전혀 살리지 못해 지역 대표축제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나주목문화제'와 '영산포 흥어 축제'를 쌍두마차로 경제성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는 등 방향을 선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주민들도 "그동안의 축제는 주민들이 먹고 즐기는 행태로 관광객 유치와는 전혀 동떨어져있다"며 "이번 기회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개최했던 '영산강문화축제' 예산지출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4억9000만원의 축제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 예산으로 집행돼 전혀 지역 특색을 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개막식 축하소로 4700여만원을 비롯해 ▲무대음향설치 5500만원 ▲행사장 부스임차료 2200만원 등이

벤트사에만 총 1억3900만원이 지급되는 등 비효율적인 행사로 치증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행사도 지난 3·4월 2차 대회의를 거쳐 축제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나 지역의 독창적인 소재 등의 콘텐츠가 마련되지 않아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 관계자는 "기존 축제가 비생산적으로 예산낭비 성격이 강하고 관광자원화 등에도 미흡하다"며 "이는 소비성 축제를 지양할 것을 주문하는 감사원 지적과도 뜻을 같이해 축소 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이 초래될 것이 우려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긴급 대피항' 완도 보길도 보옥항 완공

기상악화시 긴급 대피항 역할을 할 완도군 보길면 보옥항이 완공됐다. 서해 어업지도사무소는 647억원을 들여 방파제 680m·물양장 349m·호안 등을 축조하고 어항부지 1만6700㎡를 조성했다. <서해 어업지도사무소 제공>

전통방식 강진청자 구입 절호의 기회

화목가마서 구입내 내일 즉석 경매

전통방식으로 화목(火木)가마에서 구입내 강진청자를 구입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다.

강진청자박물관(관장 안금식)은 14일 오전 11시 오키다에 상감청자를 생산했던 사다리 가마터를 분쇄 만든 반지하식 오름가마인 '강진관요 제2호 가마'에서 공개 요철행사를 갖는다.

박물관은 길이 8m·폭 110cm·높이 90cm인 2호 가마에서 9년 연속 국가 지정 최우수축제인 제 38회 강진청자 축제에 기념하기 위해 40점의 청자작품을 구매했다.

이번 화목작품은 지난달 29일 오전부터 40시간 동안 불을 지켰고, 작품 밑바닥에 강진관요(康津官窯)와 화목가마작품임을 표시하는 목(木)자

를 새겨 넣었다. 공개요철이 끝난 작품은 선별과정을 거쳐 오후에 청자박물관 잔디밭광장에서 즉석경매를 실시한다.

경매는 박물관이 제시한 최저가보다 높게 응지에 구입 희망가격을 적어 투찰함에 넣으면 응찰한 가격 중 최고가에게 낙찰되며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안금식 청자박물관장은 "경매에 낙찰된 작품에는 이번 행사의 개요와 함께 화목가마 작품임을 인증하는 별도의 인증서도 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국제 청소년수학여행지 전남이 뜬다

올들어 중국·일본 등 잇단 방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해야

전남도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청소년수학여행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일본과 싱가포르·러시아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전남지역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과 5월 일본 사가현 에메히코등학교 총 100여명이 수학여행을 다녀간 것을 시작으로 5월 싱가포르 60명, 6월 러시아 청소년 50여명 등이 전남을 찾았다.

12일에는 중국 중학생 2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수학여행단이 전남을 방문, 전남도내 중학생 100명과 한중 청소년 교류캠프에 나섰다.

이번 수학여행단에 참여한 학생은

중국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도시에서 선별된 영어 우수학생들이다.

학생들은 12~15일 순천청소년수련소에서 ▲명랑운동회 ▲s-보드 ▲서바이벌 게임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교류와 친교활동을 통해 우정을 쌓는다. 또 견학활동으로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순천만과 남도 문화유산자원인 낙안읍성을 둘러본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세계 관광시장에서 청소년 여행시장 규모가 약 1360억달러 이르고, 국제여행객의 20%를 차지하는 수학여행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학여행상품 개발 ▲교직원 대상 수학여행설명회 ▲수학여행프로그램 ▲교류상품 개발을 위



한 현지여행사 초청 캠프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동호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현재의 단조로운 수학여행 상품과 여행프로그램을 다변화하기 위해 일본의

근대역사와 관련된 상품과 중국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관광상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초록 풀밭길 따라 같이 걸어요"

신안 흑산도서 내달 11일 '전국 섬 등반대회'

'천혜의 해상 관광지'인 신안 흑산도에서 다음달 11일 '제10회 전국 섬 등반대회'가 열린다. '자연과 사람, 행복 충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등산대회는 해발 272m의 칠락산·상라산에 지정된 국립공원 탐방로 3km 구간에서 열린다.

등산코스는 흑산항 어리 물양장을 출발해 삼골(탐방로입구)→칠락산→분기점→마라재→상라산(흑산도아가씨 노래비)까지로 3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등반대회는 망망대해에 우뚝 솟은 기암괴석과 검푸른 바

다가 함께 어우러진 '천혜의 섬' 흑산도와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흑도, 국내 최초 도서 지역 산지습지로 지정된 탐사르장도 습지, 한반도 최서남단 가거도 등 인근 관광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부대행사로 등반대회 기념 사회활동대회가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푸짐한 지역 특산품을 준다.

이번 등반대회는 '제4회 흑산흥어축제'(9월 11~12일) 기간중에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흥어 시식회 등 체험행사로 함께 마련된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서남권 낚시어선 불법행위

목포해경 15일까지 집중단속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서남권 섬 피서객의 안전한 해상 이동을 위해 낚시 어선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해경은 피서객이 집중될 13~15일 취항·포구 및 낚시 어선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경찰관과 경비함정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해·육상 입체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은 ▲낚시 어선을 이용한 유·도선행위 ▲정원초과 및 미신고(무면허) 낚시어선 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 하선 행위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음주 운항행위 등이다.

낚시 어선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늦깎이 한글깨치기 신나요"

신안군 섬지역 노인 대상 '찾아가는 문해교실' 호응

"고추가 빨갛게 익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만 하고 있다니까."

12일 찾은 신안군 안태면 활목마을을 경로당 할머니 10여명이 초등교과서를 펼쳐놓고 또박또박 글자

를 써나가며 한글 익히기에 열중하고 있다.

신안군이 섬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해 사람의 열매 배분사업에 선정되면서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자원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성인문해 초등교육 프로그램 3단계 중등학교 1·2학년 수준인 문해 1단계 과정만 운영중이다. 이 과정은 교과부 지정 성인 문해교과서 소망의 나무 1~4권을 활용해 학습자의 한글 깨치기 주요 학습목표이다. 여름학기(7~9월)는 10개 읍·면 16개 학습장에서 노인 217명을 대

상으로 운영중이다.

적은 국고보조금 지원(71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많은 군비 9300만원이 투입됐지만, 예상보다 많은 학습자들이 몰렸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달중에 16개 학습장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더욱 알찬 성인 문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현대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Modern Real Estate. Includes sections for '토지 매매' (Land Sale), '매일동 준 공업지역' (Industrial Area), '광안1구 1층 일반주거지역' (Residential Area), '건물 매매' (Building Sale), and '공장 창고 건물 매매' (Warehouse/Factory Sale).

금당 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indang Real Estate. Includes sections for '감정가 이하' (Below Market Price), '매도·교환' (Sale/Exchange), and '원룸·다세대부지' (Apartments/Land).

GG경매컨설팅(주)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G Auction Consulting. Includes sections for '아파트' (Apartments), '상가주택' (Commercial/Residential), '토지(전/답/임야/대지)' (Land), '근린시설' (Community Facilities), '원룸/빌라/다세대/오피스텔' (Apartments/Offices), and '상가 임대' (Commercial Leases).